

“나의 교육현장 답사기” : 현장교육실습, 교육봉사 경험과 성찰

2019학년도
교육실습(교육봉사, 현장교육실습)을 통한

나의 교육현장 답사기 공모전

접수기간
2020. 1. 2.(목) ~ 2020. 1. 14.(화)

공모전 접수
1. 2.(목)~1. 14.(화)
답사기 공모전
안내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1. 15.(수)~1. 17.(금)
공모전에서 접수된
작품 중 우수작
선정

심사 결과 발표
1. 20.(월)
우수작 선정결과
발표 (9명)

시상식
1. 30.(목)
발표 및 시상
※ 시상일정 추후
변경 가능

공모자격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접수기간 2020. 1. 2.(목) ~ 2020. 1. 14.(화) 17:00

공모주제 나의 교육현장 답사기

공모내용 교육봉사 또는 현장교육실습을 통해 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천 경험, 후배들을 위한 제안 등 작성

01 현장교육실습(또는 교육봉사)의 경험 및 성찰

02 현장교육실습(또는 교육봉사)에 참여할 후배들을 위한 TIP
※ 현장교육실습과 교육봉사 중 택일하여 작성하거나 함께 작성 가능

제출서류
답사기 공모전 지원서[서식활용]
※ 학교 홈페이지 또는 사범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이메일 (whill@chulac.kr) 또는 직접 제출 (교로법인재량성센터 203호)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서명 끝에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파일 제목: 답사기 공모전-성명

작품규격
A4용지 3쪽 내외로 작성
줄번호표제,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 20mm, 머리말, 꼬리말 여백 15mm

시상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200,000원

장려상 (5명)
100,000원

참여자상 모든 참여 학생에게 교내 커피 쿠폰 제공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사범대학 교수학습혁신지원센터 W15(203호), 042-821-5205

2020. 2.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
충남대학교 교직부

목 차

- ‘나의 교육현장 답사기’ 공모전의 수상/응모작 원고 중 일부를 선별, 수록함.
- 필요시(예: 분량 조절, 실명 민감성, 오타자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함.
- 미국 유타주 교육실습은 국제교류본부를 통한 방학 중 프로그램,
소주한국학교 교육실습은 사범대학에서 2019년에 진행한 학기 중 프로그램임.
(2012~2018년에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중학교 실습을 진행해왔음)
- 현장교육실습(4학년 1학기)와 교육봉사(30시간, 2회) 준비에 참고하기 바람.

* 현장교육실습

1. 중학교 교육실습 경험	이현재(중어중문학과)	1
2.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실습 경험	정연주(사회학과)	4
3.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실습 경험	김정원(건설공학교육과)	8
4. 미국 교육실습 경험 - 유타주	전종민(수학교육과)	11
5. 재외한국학교 교육실습 경험	장기상(체육교육과)	15
- 중국 소주한국학교	김도희(교육대학원 건설공학교육과) ..	18
6. 현장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우들에게	이수진(수학교육과)	22

* 교육봉사

7. 110시간의 교육봉사 경험	안주영(생물과학과).....	25
8. 학생회 주관 교육봉사 경험	박민진(건설공학교육과)	27
9. 아동복지시설 교육봉사 경험	김규비(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30
10. 교육봉사를 하려는 학우들에게	오민재(기술교육과)	32

"선생님, BTS 좋아하세요?"

교육실습 첫날 아침, 담당 학급 학생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마친 후 교실에서 마주한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첫마디는 다름 아닌 BTS로 시작되었다. '요즘 애들 앞에서 방탄소년단 싫어한다고 하면 완전 매장이래,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좋을 거야. 미리 노래라도 들어가지 그래?'라던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친구의 말이 귓가에 아른거렸다. 어떻게 답해야하지? 모른다고 하면 구세대취급을 받을 테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나 별 관심 없다는 이 내 마음을 그대로 내뱉으면 당장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와의 관계가 시작도 못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다. 선생님은 아이돌 잘 몰라, 선생님 나이가 몇인데~ 하고 웃으며 바라본 아이의 어깨에는 바로 그 방탄소년단이 디자인했다는 캐릭터가 크게 그려진 담요가 망토마냥 사뿐히 내려앉아 있었다. 다행히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는 이 교육실습생에게도 아이들은 마냥 호의를 베풀어주었다.

아이들과의 첫 대면을 마치고 교실에서 돌아 나오면서 중고등학교시절, 나 역시 친구들과 함께 아이돌에 열광하던 그 때를 떠올리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과연 요즘 애들이란, 하며 교무실로 돌아서는 발걸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십여 년 전 그 언젠가 나를 바라봐주셨던 선생님 눈에는 그저 요즘 애들에 불과했을까?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물론이고 지인 중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학교에서 처음 뵈게 된 선생님들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중 하나는 요즘 교사들은 소위 손발이 묶인 채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셈이라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체벌이 사라진 학교, 그리고 요즘 애들 무섭다는 얘기가 늘 들어왔던 말인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게 무서운 아이들 사이에서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 실습에 뛰어들게 되었다.

내가 한 달간 경험한 교실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론과 상식이 통할 듯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상식적으로 교육실습이라고 하면 그동안 배웠던 잘 기억나지 않는 이론들까지 어찌어찌 긁어모아 어떻게든 활용도 해 보고, 교생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환호를 받는 그러한 그림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난 실습기간을 되돌아보면 전공 지식 혹은 교육학적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기응변으로 하루룩 넘어가는 날이 훨씬 많았다. 그렇다고 내가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주말을 꼬박 반납하고 며칠 밤을 지새우며 수업자료를 만들고 수정했으며, 때때로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더욱 양질의 수업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다. 그럼에도 진땀나는 하루들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몇 차례 진행했던 차시의 수업이었음에도 수업 내용의 반의 반 정도가 남은 채로 종이 올려 당황했던 일, 준비했던 ppt가 열리지 않아 즉석에서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던 학급도 있었다.

물론 실습생의 신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수업을 할 수 있지도 않을 것이고, 애초에 현직 교사 분들께서는 미숙한 우리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 완벽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면 된다. 처음으로 교생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들떠서 떠

들거나 산만한 모습을 비출 수 있다. 이 때 조용히 시키지 않고 교사의 목소리가 함께 커지기만 한다면 수업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목도 상할 수 있으니 초반 수업 분위기 조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조용히 하라며 도리어 소리를 지르시던 내 과거의 선생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며, 어느새 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업 진행에 있어서 자신이 수업하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피하기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수업을 녹화한 후,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수정하는 것이 그 다음의 수업을 진행할 때 꽤나 큰 도움이 된다.

사실 학교에서 교사로서 수업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역할을 해내야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생활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먼저, 학교는 사춘기 학생들이 모여 있어 언제라도 각종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틈틈이 학생들을 돌아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조회 및 종례시간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학교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학생들의 머릿속에 넣어주어야 한다. 또한 언행이라든가 분리수거와 같은 생활습관에 있어서는 말로만 알려주는 것보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일 때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교사가 학생 곁에서 밀착하여 지도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실습을 나가게 되면 학교에 적응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지만 바로 업무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일과표나 시간표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신이 없을 수 있다. 아침에 그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변화에 쉬이 적응할 수 있고, 전달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실습기간이 될 것이다.

교육실습 일지는 부지런하면서도 꾸준히 적으면 큰 도움이 된다. 마치 일기를 쓰는 기분으로 실수가 잦았던 날에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고, 하루하루 겪었던 애로사항들을 적어두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적고 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담당 지도 선생님께서 성심성의껏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나 그러한 화제를 중심으로 상담도 해 주실 수 있으니 방학이 끝날 무렵 밀린 일기를 쓰는 다급한 마음이 아닌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는 장소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기면 좋을 것이다.

각을 잡고 하는 진행하는 상담이 아니라도 담당과목 선생님과 수업 가는 길에 함께 복도를 거닐며 해 주신 이야기들이 내게는 제법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일상의 순간들에서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얻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다. 학생들과의 상담도 마찬가지이다. 함께 실습을 하던 실습생 중에서는 막상 상담을 진행하려니 어색하지 않던 학생과도 어색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나 역시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서 일상 속에서 학급의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했고, 따로 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서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교사에게 큰 것에 작게 놀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칭찬이나 축하하는 크면 클수록 좋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다쳤을 때 오히려 부모는 놀란 체 하지 않고 담담히 대처하는 것

이 방법이듯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정서적인 면에서의 보살핌에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무섭다는 요즘 애들은 생각보다 순진하고 투명해서 가정사라든가 실습교사에 게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거나 악의 없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도 한다. 아이들의 거침없는 언행과 그에 대한 대처에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순간의 감정으로 당황하여 그를 동정하거나 더 나아가 편애, 차별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학급이나 학생 간에 발생한 문제를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담당 선생님과 늘 의논하는 것 역시 실습교사가 지녀야 할 태도일 것이다.

모두에게 즐겁고 유쾌한 실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처럼 착한 아이들과 친절 한 지도 선생님을 만나서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눈물을 쏟으며 힘겨운 나날이었다며 털어놓는 속상한 경험일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환경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매 순간에 노력하여 ‘적어도 나는 열심히 했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한 성취를 얻었다면, 그로 인해 한 발짝 더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실습은 내가 학교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것에 의미가 있기 보다는, 학교와 아이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 것에 더욱 크고 묵직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집 앞 10분 거리인 모교로 교육실습을 다녀와서인지 어느새 해가 바뀐 요즘도 가끔 길을 걷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동네 어느 구석에서라도 나를 발견하고 천진한 웃음을 흘리며 뛰어와 집에 온 주인을 맞는 양 반가이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 참 고맙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랄도 된 듯한 기분을 주는 그 웃음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기껏해야 4주,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매일 눈을 맞추었다는 것 하나로 아이들은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나를 그저 좋은 선생님이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무엇이 된 기분이다. 어느 시인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고, 나 역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했던 것과 같이 학생들과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된 것 만으로 이미 교육실습은 나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큰 웃음이 아니더라도 밝은 미소로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무섭다던 요즘 애들도 어느새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 우리는 어쩌면 요즘 애들이라는 단어에 학생들을 묶어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도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주 불러주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낀다. 학생들의 이름에 애정을 담아 자주 불러주기만 해도 이미 아이들은 나의 꽃이 된다.

초 단위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어느덧 교육실습의 마지막을 향한 그 날. 바로 그 날이 실습을 경험하는 모두에게 후회보다는 훗날의 자부심이 되어있길 바란다.

나는 모교인 00고등학교로 교생을 나가게 되었고, 과목은 일반사회였다.

<교과>

지도 선생님께서는 <정치와 법> 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요즘의 교육 트렌드에 맞게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계셨다. 한 시간은 직소모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 시간은 교사가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하여 공부한 내용을 강의식으로 정리해주는 수업 방식이었다. 우선 나는 책으로만 배우던 모형이 실제 수업에 적용된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했고 나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 외였다.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보다 협동학습을 선호할 줄 알았는데, 협동학습을 하면 정신이 없다고 안하면 안 되냐고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아이들이 협동학습을 하면 학습 정도가 높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지도 선생님께서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직소 모형의 수업을 고집하고 계셨다.

역시나 직소 모형을 이용한 수업은 모든 학생을 수업 안으로 끌어오는데 효과적이었다. 가장 기억나는 친구는 수업을 하기 전부터 잘못을 해서 학생부 교무실에서 많이 보았고, 혼났던 친구이다. 이 친구는 나의 생각대로 강의식 수업에서 졸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직소 모형을 적용할 때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생각은 틀렸었다. 직소 모형을 사용하니 그 친구도 의무감이 생겨서 같은 모둠원에게 “나 이 부분 몰라 다시 알려줘”, “내가 생각하는 건 이인데, 이거 맞아?” 등의 도움을 청하고 학습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나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직소 모형의 효과를 톡톡히 느꼈고, 내가 가져온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수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지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모형을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시험 진도를 맞춰야 해서 6차시 중 5차시는 강의식, 1차시는 협동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처음 1차시에는 1차시 분량을 30분 만에 끝내 버려서 당황했지만, 2차시부터는 내가 수업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었고, 판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었다. 물론 아직 판서가 부족한 면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다고 해주어 뿌듯했다. 그렇게 4주차까지를 보내고 4주차의 마지막 시간에 2학년 3반과 연구수업을 진행하였다. 2학년 3반은 내가 담당하는 학급 중에 가장 대담을 잘하고 활기찬 반이기에 연구수업을 진행했는데, 연구수업 때도 평소처럼 잘해주어 나 또한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 또는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생실습을 통해 20번 가까이 수업 해오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교 발표도 떨던 내가 수업시간이 되면 떨지 않고 여유를 가진다는 점이 신기했다. 이 부분은 지도 선생님께서도 신기하다면서 처음 시간부터 “이건 정말 장점이네요!” 라고

말씀해주시기도 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즉,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반마다 다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가르친 반은 2학년 1반, 2반, 3반이었는데, 그 중 2반과 3반은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는 반이라서 어느 때나 활기차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반은 대답을 거의 하지 않고, 토론을 해도 매우 작은 목소리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첫 수업 주에는 “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냐 보다.” 라고 생각되어 몹시 우울했는데, 그 한 주가 지나니까 ‘1반의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적응하여 1반만의 수업을 구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순발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보자면 교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하는 직업인 것 같다. 학생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다른 부분과 연결 지어 질문을 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다른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술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들과의 신뢰도도 처음보다 많이 쌓이게 된 것 같다.

4주차 마무리에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하여 설문지를 돌렸는데, ‘PPT나 동영상 등 시각자료 활용이 좋았다’, ‘목소리 톤이 듣기 좋았다’, ‘그냥 좋았다’, ‘기존의 선생님보다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잘 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학업에 도움이 되었어요!’ 등의 좋은 말을 많이 해주어서 내가 더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가는 것 같다. 이래서 교생 한 달로 수험 생활을 버틴다고 하는 것 같다.

<학급>

나는 학급과 교과와 학년이 달랐기 때문에 학급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진로시간에 나 혼자 들어가서 아이들과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셋째 주 부터는 내가 교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청소시간에는 꼭 학급에 가서 청소지도를 하고, 예비종이 치고 나서야 교무실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다. 청소 시간동안 아이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고민이라든가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간은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내가 힘을 쓴 시간이기도 하다. 평소 우리 반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1학년 남자반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반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용인 할 수 없었기에, 아이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 출선수범을 하는 등의 청소 지도를 통해 우리 반을 깨끗한 반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특히, 매번 칠판이 너무 더러워서 칠판 청소에 힘을 썼다. 우선 칠판 청소 담당을 불러서 걸레를 빨아오라고 시켰더니 걸레로 칠판을 닦느냐며 신기해했고, 다른 친구들은 “우리 반 칠판 걸레로 처음 닦는 거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계속해서 집중 지도를 하였더니 2주차에는 내가 청소시간에 늦게 들어가도 혼자 걸레를 빨아오고 칠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강화의 의미에서 깨끗해진 칠판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그랬더니 뿌듯해하면서 그 뒤로 칠판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역시 학생들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정

말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칠판 청소용 걸레가 없어졌는데, 스스로 담당 선생님께 가서 새 걸레를 받아오고 청소까지 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또한, 수요일 봉사시간과 독서시간은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감독하려고 노력했다. 안 그래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데,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헤어질 때 몹시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나도 내 할 일을 하려했으나, 학급 아이들을 혼자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라 누군가와 말을 하고, 서로 문제를 내주며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학습 분위기 형성까지가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말을 하면 귀 기울여주고, 따라주어 고마웠고, 나의 눈치를 보며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그러나, 그렇게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혼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존재했다. 그들을 보며 '나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 스스로 반성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편지에 그런 모습을 꼭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선생님에게는 크게 다가왔어'라는 멘트를 써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선생님 언제 가요?" 라고 물어보는 빈도가 높아졌고, 아이들의 아쉬움이 나에게 전해졌다. 더욱이 그랬던 것이 학급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지 못한 친구가 먼저 물어봐주고 저런 대답을 해준다는 것에서 '내가 그래도 교생생활을 잘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고마웠고, 아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사랑으로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교생이 끝나감에 아쉬움을 느꼈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미안했다. 한 명씩 다 상담을 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특수반 친구랑 운동부 친구들에게 많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교과 수업이 없어서 담임 학급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4교시를 제외하면 굉장히 여유로웠다.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떨렸다.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교생 한 달 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꼭 생각나면서 행복하기만 했다. 하지만 교실을 나가고 교문을 나가는 순간에는 한 없이 아쉽기만 하고 시간을 붙잡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다.

이렇게 교생실습을 하면서 확실하게 얻어가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라는 확신이다. 아이들도 너무 좋고, 내 지식 전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길러지고, 재미있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교생실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 더욱 노력해서 꼭 교사가 되어야겠다.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느낀 점>

나는 동료 교생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실습 생활을 교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현직의 분들과 같이 보냈다. 또한, 내가 지내는 곳이 교생을 위한 교생실이 아닌 학생부 교무실이었기에, 다른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교과 담당 선생님, 학급 담당 선생님은 당연히 자주 뵙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지 못했기에 내가 직접 1학년 교무실과 2학년 교무실, 그리고 본 교무실을 전전하며 선생님들과 차 한 잔 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노력했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나, 교생 첫 날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때는 대부분의 부

장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교육정책 특히나, 충북의 교육정책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 선생님께서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퇴직 후에 사회적 기업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미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셨고 활동을 하고 계셨었다. 나는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은퇴 후에 교사의 능력을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탄만 했는데, 이미 실천 중이시고, 그 규모가 상당함에 놀람을 멈출 수 없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기는 하지만, 나도 나중에 교사가 되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나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나의 삶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생활을 보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수업 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직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교직 수업에서 ‘학교 규모의 비대화로 교사의 역할 또한 많아진다. 그리하여 교사의 행정상 업무가 많아지고 이는 수업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이를 선생님들과 한 달간 같이 지내면서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내가 간 학교에서는 교무부장님의 업무가 몹시 많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셨 보였다. 교생을 간 첫 주부터 “교생 선생님~ 제가 언제 차 한 잔 먹으러 올라갈게요~” 라고 해주시던 교무부장님께서 볼 때 마다 자신이 너무 바빠서 못 올라갔다면서 이번 주에는 꼭 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하지만 그 또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내가 본 교무실로 내려갔지만, 교무부장님은 일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제대로 차도 한 잔도 못하고 교생실습을 마쳐야했다.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수업 준비만으로 벅찬데, 저렇게 업무까지 많으시면 정말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업무를 맡으면 수업 준비는 언제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교과 지도 선생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학생 참여형 수업을 꾸리기 어려운 이유라면서 꼭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학생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생각 되었다.

<앞으로 교육실습을 나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첫째, 실습을 가기 전에 혼자 스스로 해당 전공의 내용을 적어도 한 번씩은 공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교생 전에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혼자서 전공을 공부하고 간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에게 전해줄 때 보다 조리 있게 전해줄 수 있어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무조건 담임 반에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방해할까봐 쉬는 시간에는 교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해서 교실에 찾아갈 때 학생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며 이것저것을 말해주어 훨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교생에 올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생 첫째 주까지는 교생과 임용 준비 둘 다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면서 수업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임용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내용이 어차피 임용과 연관되니, 수업에 그리고 교생에 집중하기로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익힌 내용은 몇 개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과가 임용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시고 실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교육실습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각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교육실습을 4주에 걸쳐 이수하였고 실습하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과 그것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보려 한다.

꽃샘추위가 차츰 꺾이고 더위가 몰려오기 직전인 4월, 나는 설렘과 적절한 긴장을 안고 OO고등학교 건설 과목으로 교육실습을 한 달 동안 갔다 왔다. 교육실습 첫 날은 매우 정신없이 지나갔고 학교에 있는 내내 긴장 상태였다. 학교 여러 교직원분들과 교육실습생들끼리 간단히 인사를 마친 뒤, 배정된 반과 교과 담당 선생님을 확인했다. 1학년 6반 토목과로 배정되었고 담임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셨으며 교과 과목으로는 역학과 토목 기초 실습 과목이 배정되었는데 학부 전공과목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흥미를 느낀 과목이 구조 역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을 대면하러 가기 직전까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이 나를 또렷이 쳐다보았고 학생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난 뒤,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 반응이 활발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기죽지 말고 당당히 4주 동안 생활해보자고 다짐했다.

교육실습은 약 4주간으로 이루어지며 어찌 보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실습 기간 내에 대학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최대한 배우고 오는 것이 좋다. 학교 전체 시간표를 받은 뒤 내가 처음 한 생각은 ‘뭐야, 죄다 실습과목 뿐이잖아’였다. 인문계열 고등학교와 달리 공업계 고등학교는 진학보다는 학생들의 취업이 1차적 목표이다 보니 이론 수업보다는 실습수업에 치중되어 있다. 교육실습 둘째 날, 교과 담당 선생님과 수업 계획을 짜는 도중 나에게 레벨 측량, 시멘트 비중 시험, 체가름 시험 등의 여러 가지 실습 중에 해본 것을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나는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토목 실습 중에 할 줄 알거나 해본 실습이 몇 개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학과 교육 과정에는 건설CAD 및 설계, 건축시공시실습, 재료 및 콘크리트 실험, 응용 측량학 등 각 분야에 맞는 실험 및 실습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교육실습을 오기 전에 실험 및 실습 과목의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했고, 거의 이론 과목을 위주로 수강 신청하여 수업을 이수했었다. 이미 실습 과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동료 교생 선생님들은 막힘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도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 현장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수업 관련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하기에 교과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토목 기초 실습 과목의 여러 가지 실습을 공장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다. 특히, 레벨 측량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였는데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론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실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기에 학생들에 앞에서 해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레벨 설치부터 직접 측량하는 것까지 빠른 시간 내에 끝마치려고 노력했다. ‘건설’ 과목에 대한 나의 자신감

은 실습 첫 주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실습 연습을 하면서 교과 담당 선생님의 쓴 소리도 들곤 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론 못지않게 실습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대학에서도 공업계 교육과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실험 및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실습 과정에서 가장 배울 것이 많고 의미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수업일 것이다. 연구수업이란, 대표 교생이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 시연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러 교생들 중에 내가 대표 교생이 되었고 실습 4주차에 연구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구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에는 무턱대고 수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과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는 것이 좋으며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기 전에 여러 번의 수업을 통해 교수 학습법을 적용해보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업을 구상할 때는 교사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하고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 일방적인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적절한 참여도 유도하여야 한다.

나는 연구수업 단원으로 토목 기초 실습 과목에서 레벨 세우기와 야장 단원을 정했고 수업을 조직할 때 도입 부분으로 레벨 측량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퀴즈를 통해 유도하면서 흥미를 유발하였고 전개 부분에서 직접 레벨 기계를 여러 대 준비하여 학생들이 수업 중에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무턱대고 학생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레벨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였고 야장 정리 실습지를 작성시켜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념을 주입시켰다. 이외에도 발성이나 목소리 톤, 레벨 실습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동선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모둠 배치, 학생들끼리의 실습 순서 등 완벽한 수업을 위해서는 고려할 것이 매우 많다. 나는 충북대학교 좋은수업 경연대회와 교내 수업경진대회를 나가면서 여러 수업 방법과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딪히는 수업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수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토목 기초 실습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실습에서 연구수업은 반드시 해볼 것을 추천한다.

교육실습생은 학교에서 4주 동안 머무르는 ‘방문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나 자신도 한 달 만큼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실습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학교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여러 부서가 존재하고 또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존재한다. 교육실습을 가서 첫 주에는 여러 교육실습생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학생들에 대한 지도법 등에 대해 연수를 받았다. 00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00고등학교에서는 매력적인 직업계고(‘매직’사업)에 선정되어 직업기초 능력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매학기 대 전 소재의 여러 기업을 초대해 직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그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거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서 적절한 선발과정을 통해 소수의 학생들을 뽑아 토목직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공무원반을 맡고 계셔서 공무원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공부에 대한 고충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 학생들의 입장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교육실습을 나가서 교수학습의 측면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생활 지도 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다. 나또한, 처음 학생들을 대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나는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담임선생님께 출석명부를 받아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일단 학생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면 학생들은 먼저 다가오려고 한다. 물론, 성격이 온순한 학생도 있지만 성격이 거친 학생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요즘, 한창 방영하고 있는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에 이러한 대사가 나온다. ‘밧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가정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우리 반에 말수도 적으며 표정도 항상 어두운 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가까이 오지 않다가 그 학생과 개인별로 상담하는 와중에 학교가 너무 맘에 들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반에 들러 학생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동아리나 체육활동을 같이 하면서 래포를 형성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언젠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 폭력으로 상담 센터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내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해봤어야 했는데 그 점은 매우 아쉽다.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또한, 여러 논문에서는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교직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고 직접 교육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대학에서 절대로 해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고 50분의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흘렸을 현직 선생님들의 수많은 땀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실제 교육 현장을 다 알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던 나에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 느낌을 받게 해 준 4주였다.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던 또는 혹시 교직과 관련 없는 일을 할지라도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요즘 언론에서는 자주 교직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내비친다. 하지만, 직접 교육 현장에 나가 경험해 보았고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 밝은 면을 통해 학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 전역 후 복학한 지 한 달이 지난 2018년 4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다 학과 공지를 읽은 나는 눈이 번뜩 뜨였다. ‘미국 국제교육실습생 선발 공고’이었다. 미국 유타 주에서 8월 4주가량 홈스테이하면서 교육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초강대국인 미국에서의 교육실습이라고 하니 도전해보고 싶었다. 미국의 교육은 달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분명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교육 가치관은 무엇일까?’, ‘교육 시스템은 어떨까?’와 ‘미국 학생은 어떤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을까?’ 등의 궁금증을 직접 경험하며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합격자 발표 날짜에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좌절하고 있던 중 추가 합격되는 바람에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마지막으로 몸을 실을 수 있었다.

2018년 하계 미국 국제교육실습은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미국 유타 주의 세인트 조지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인 Snow Canyon High School에서 교육실습을 하였다. 첫 주 하루하루는 컬쳐 쇼크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는 학교 시간표였다. 이 학교 학생은 교시 당 65분 수업에 이동시간 5분 해서 오전 8시 15분 1교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45분 5교시가 마치는 순간 하교한다. 해 뜨기 전에 등교해서 해 지고 나서 하교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이었다. 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어떤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면 놀랄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웅장한 학교 크기였다. 학교 시간표에 따르면 이동 시간은 5분인데 과연 5분 동안 다른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정말 넓었기 때문이다. 실외에는 미식축구장, 농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실내에는 치어리딩 강당, 오케스트라 강의실, 체육관, 다목적실, 공방, 미술실, 원예실과 컴퓨터실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어떤 분야든지 선생님이 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다.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고등학생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었다.

세 번째는 선생님과 학생의 유대감이었다. 시간표를 학생의 기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보니 수업 시간에도 복도 밖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나의 담당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미국도 수학이 필수과목이라 그런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다 선생님을 발견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수업 중에 들어와서 하이파이브하고 선생님과 만담을 주고받다 선생님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보니 놀라웠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본 모습은 끈끈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끈끈함이 사제시간을 돈독히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네 번째는 학생이 수업을 듣다 질문이 생기면 손을 들고 선생님이 볼 때까지 손을 절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질문이 생기면 손을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보면 뺄뻘해서 손을 내리는 것이다. 미국 학교는 달랐다. 학생이 질문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볼 때까지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다. 손을 들고 있는 한 응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선생님도 기대에 부응하듯 손든 학생에게서 질문을 듣고 질문을 해결해주었다. 이 학교만의 문화인 줄 알았는데 식당에 가도 종업원이 올 때까지 손을 들고 있는 미국인을 보고 미국의 문화구나 라고 느꼈다.

많은 걸쳐 쇼크를 경험한 우리에게 나의 담당 선생님은 ‘이왕 미국 고등학교에 온 김에 다양한 수업을 둘러보며 다양한 경험을 해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둘째 주부터 수학 수업을 참관할 뿐 아니라 다른 실습생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학교를 돌아다니다 눈에 띄는 수업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참관하였다. 선생님들이 흔쾌히 참관을 허락해 주어서 감사하였다. 나무 공예, 기계 공학, 그래픽, 오케스트라, 건설 등의 수업들이 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은 치어리딩과 자동차 공학 수업이었다.

치어리딩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수업으로 접하기 쉽지 않아서 인상 깊었다. 치어리더들이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순식간에 여러 동작을 일사천리로 해내는 것이 멋있었다. 다른 학교와 미식축구 대항전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 학교를 응원하러 경기장을 방문하였는데 오전에 만난 치어리더들이 연습한 동작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유쾌한 응원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웠다. 미국은 고등학생이 운전할 수 있다 보니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자동차 공학 수업에서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자가용을 가져와서 수업에 임하였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엔진과 타이어 등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3주 간 여러 수업을 참관하며 미국의 교육 문화를 학생으로서 체험하였다. 마지막 주 우리는 선생님이 미국의 교육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 실연을 하였다. 원래의 수업 내용은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한국에서 수학교사를 할 것이니 수학을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었다. 고민하다가 나는 Ok를 외쳤다. 우리 교실의 학생들은 우리가 복사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Math Copy Machine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복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Math Teacher로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 수업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나는 Mathematics II에서는 다항식의 곱셈을, Mathematics III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설명하여야 했다. 다항식의 곱셈의 핵심은 분배법칙(Distributive Property)이고 항마다 곱하는 FOIL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다항식의 곱을 해내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수의 나눗셈(Arithmetic Long Division)의 확장으로 설명하였다. SDMSR이라는 방법으로 수의 나눗셈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다항식의 나눗셈

을 할 수 있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수학의 핵심은 똑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점을 파악한 후에 수업을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나의 소개와 수업 내용이 담긴 PPT와 Work Sheet를 제작하고 수업 구상을 끝냈다. 방과 후 선생님에게 자료를 보여주었고 준비를 잘했다고 칭찬해주었다. 그때 선생님은 지금 바로 수업을 해보겠냐고 물었다. 선생님 앞에서 처음으로 영어 수업을 해보고 두 가지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내용은 아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 칠판을 처음 써봐서 판서가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본을 만들기로 하였고 적절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다른 교육실습생에게 조언을 구하여 대본을 완성하였다. 판서는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방과 후에 연습하였다.

교육실습 수업 당일 내 순서가 왔을 때, 교단에 서는데 상당히 긴장되었다.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수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압박감이 들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비록 내가 학생들보다 영어는 못할지라도 수학은 잘하니 자신감 갖자.’라고 자기암시를 하였다. 이 자기암시 덕에 용기를 얻었고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었다.

나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동양인이 실제로는 대학생이고 군대도 다녀왔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고생했다고 말해주었다고 했을 때 참 고마웠고 Work sheet를 풀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학생만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재밌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낯설고 특별한 경험이 나를 한층 성장시켜주었다.

첫 번째는 ‘미국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수학 수업을 해보았다.’라는 것이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평소의 나는 좋은 기회가 생겨도 혼자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도전하지 않았다. ‘도전해볼걸...’이라는 후회하기 부지기수였다. 미국에 다녀온 후 나는 달라졌다. 대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의기양양 자기주도학습’ 코치에 도전하고 KB국민은행에서 주관하는 ‘KB 학습멘토링’멘토에 도전하였다. 군 휴학 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와는 다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긴 덕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고 나서 후회할지언정 시작도 못 하고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학생이 궁금하면 궁금증을 꼭 해결해주는 것을 나의 교육 가치관으로 삼게 되었다. 자기주도학습코치로서, 학습멘토로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확실히 알지 못해도 질문하지 않고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질문이 생기면 손들고 해결되기 전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학생이 생각나면서 나의 학생들에게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갔는지를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쭈뼛쭈뼛하며 질문하지 못해도 몇 번 물어보다 보면 궁금한 점을 잘 이야기해준다. 이 덕에 수업 끝나고 ‘오늘의 수업 한줄평’을 작성할 때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만족스러워하였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 배웠다. 상대방에게 대우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대우해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어가 짧더라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쉬운 영어로 말하여 주었다. 학회장으로 있는 동안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먼저 신입생 같이 도움이 필요한 후배를 이끌고 도와주면 그 후배가 나를 의지하고 지지해준다는 것이었다. 나눔에 인색한 나였지만 지금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싶거나 이색적인 교육실습을 해보고 싶으면 ‘미국 국제 교육실습’을 다녀오기를 적극 추천한다. 나는 미국에서 보낸 매순간이 행복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가기 전 조연을 하자면 영어 회화 동아리에 가입해보기를 권한다. 영어를 평소 안 듣다가 들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출국 전 영어 회화 동아리에 들어가 영어로 직접 대화해보면서 자신의 말하기·듣기 수준을 파악하고 높이면 좋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업 실연을 해보기를 권한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판서 계획을 세우고 수업한다. 한글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판서 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수월하게 수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이 흘러가는 과정을 느낀다면 더욱 अच्छ게 교육실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실습이라고 4주 내내 교육실습만 한 것은 아니다. 방과 후에는 홈 파티를 하고 저수지에서 제트스키와 카약 등의 물놀이를 하고 동굴 탐험을 떠나는 등 경험을 하였다. 주말에는 디즈니랜드, 게티 하우스, 산타 모니카 해변, 그랜드 캐니언과 자이언트 캐니언 등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교육 문화뿐 아니라 대자연과 가정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물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기를 바란다.

5-1. 재외한국학교 교육실습 경험 : 중국 소주한국학교(2019.11)

장기상(체육교육과)

나는 학창시절에 학교 체육을 접하면서 스포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포츠를 꾸준히 하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 졌고 이런 스포츠에 이점과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이런 나의 생각은 나를 체육교사의 꿈을 갖도록 인도 하였다. 하지만 막상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 이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험’의 부족이라고 생각했다. 신체활동에 관한 스포츠는 자주 접하다보니 내가 어떤 종목을 잘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바로 알 수 있었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스포츠 관련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대학교 3학년 재학 동안 거의 없었다. 물론 올해 2박3일 동안 초 중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다녀왔지만 2박3일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나의 적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고, 심지어 방과 후 활동이었기에 실제로 체육교사의 삶을 엿보고 싶은 나로서는 교육봉사라는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은 않았다. 이처럼 대학교에서 체육 교사라는 직업을 탐방 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 ‘국제교육실습’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항상 직업 탐방을 희망한 나로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국제교육실습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이점들 중에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이점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업 탐방의 기회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체육은 좋아했지만 체육 과목을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직업 탐방의 기회를 갖고 싶었고, 만약 체육교사라는 직업의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진로를 다른 쪽으로 바꾸고 싶었다.

두 번째는 시기의 적절성이다. 충남대학교는 커리큘럼 상 교생실습을 4학년1학기 때 나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임용 공부를 대부분 4학년1학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교생실습 과목은 임용의 중추적 역할보다는 임용에 대한 걸림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2학기 때 하는 국제교육실습은 진로 선택 혹은 시험공부를 하기에 시기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경험이다. 학생 신분으로 외국에 한 달 동안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국제 교육실습을 통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며 식견을 넓히고 교사의 생활도 해본다는 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약 한국에서 교생실습을 실시했다면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 혹은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교생실습을 실시해야 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현장에 가서 온전한 컨디션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교육실습은 ‘공부’라는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덤으로 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번째는 재외국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 직업군이 적성에 맞아서 교직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재외국민 학생들을 가르

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재외국민 학생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재외국민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커리큘럼과 한국학교 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고, 이런 경험은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도 전달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후에 들은 얘이지만 한국에서 3년 근무를 하면 재외국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점들 때문에 국제교육실습을 가기로 결정했지만 기대감 보다는 걱정이 앞선 채로 국제 교육실습을 떠났다.

교육실습 커리큘럼 상 첫 주와 둘째 주는 참관 및 보조교사의 역할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담당 교과 선생님이 없이 자기가 지도안을 짜서 수업을 하는 수업 시연을 하는 주이다. 첫 주에는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며 소주한국학교에 대하여 알아 가는데 시간을 주로 보냈다. 체육수업 참관 또한 진행하였는데 이때 국제교육실습의 장점을 발견했다. 바로 소주한국학교 특성 상 여러 학년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학년을 다루다 보니 다양한 종목을 가르쳐 볼 수 있고, 종목을 다양하게 가르치다 보니 어떤 종목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다.

첫 주에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킥앤런 종목 참관 이었다. 킥앤런이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종목은 체육 수업의 영원한 숙제인 여학생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법을 정확히 캐치하였다. 향후 교사가 되면 꼭 적용시킬 것 이라고 다짐했다. 둘째 주에는 참관 및 보조교사 역할을 했다. 또한 첫 주와는 다르게 종목이 이외의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다. 건강생활기록장, 학생들에게 기자재 정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유도하는 것, 평소 불만이 많은 학생과 힘이 센 학생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체육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체육수업을 통한 기부 방법, 담임 활동 때 옆 반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등을 배웠다. 셋째 주에는 본격적인 수업 시연과 다양한 수행평가 기술, 체육수업에 대해 들었다. 넷째 주에는 연구수업참관과 다른 교과 참관 수업, 축제 및 작별의 인사를 했다. 선생님들과의 이별도 무척 아쉬웠지만 나의 첫 제자여서 그런지 8-1반 학생들과의 이별의 아쉬움은 공허한 마음이 들기 까지 했다. 여기가 만약 한국이라면 '나중에 밥이라도 먹자'고 만남을 기약하며 너스레를 떨었을 텐데 이 소주학교 학생들과의 이별은 만남을 기약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암묵적으로 모두가 알기에 쉽사리 말을 못 꺼냈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과의 인사와 담당 교과 선생님의 배웅으로 '교생'이라는 영원할 것 같은 배역을 가슴에 묻은 채 30부작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에 도착한 후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일단 가장 강렬히 나타났던 2가지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감정은 아쉬움이었다. 이 아쉬운 감정에는 단순 아이들과 이별을 해서 느끼는 것뿐 아니라 교생실습을 가기 전 전공 공부 혹은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교육학 측면에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 모형 혹은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수업에 적용시키지 못해 아쉬웠다.

두 번째 감정은 자신감이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 교육실습

오기 전까지는 의문이었지만 교육실습을 경험한 후 에는 의문에서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제교육실습은 나에게 많은 감정뿐 아니라 많은 이점을 안겨 주었다. 가장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점 두 가지를 뽑으면 첫 번째는 당연히 진로를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교육실습을 통해서 체육교사에 대한 불확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짠 지도안을 통해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감출 수 없었고, 이런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교사가 너무 부러웠다. 물론 교육실습생의 역할로 가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교육자가 교육을 통해 느끼는 희열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지 못할 것 같았다. 만약 내가 교사라는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정도의 기쁨과 성취감, 희열을 느낄 수 있을 지도 의문이었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을 가르치는 교사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생소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친근해 졌고 그에 따라 재외국민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여행은 자주 다니는지 등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를 인터뷰 하다 보니 옛날부터 직업을 갖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로망이 있었던 나에게 그 로망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망에서 현실로 한발 짝 다가온 느낌이 들어서 뜻깊었다.

이처럼 국제교육실습은 나에게 많은 감정과 이점을 주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한국교육실습을 경험 못해본 점이다. 한국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하지 못해서 요즘 한국학교 교육 트렌드는 무엇인지 특히 주의해야 하는 학교생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해 보지 못해 아쉬웠다. 또한 인원이 많은 학급은 어떤 식으로 수업하면 좋을지 생각은 했지만 실천을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밖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수업 외의 업무, 학생상담 등 국제 교육실습 특성상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어서 향후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일말의 걱정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교사가 된 후에 직접 경험해 봐도 늦지 않다.

지난 한달 동안 나 자신에게 교사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교사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준 국제교육실습 팀과 소주한국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특히 8-1반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임용고시 준비’에 대한 막막함을 국제 교육실습을 통해서 유연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꾸준함이 생명인 마라톤과 같은 입시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되어주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뜻 깊은 한달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나에게 고마움을 전해 줬던 학생들, 많은 가르침을 해주었던 선생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또한 1년 후 이런 나의 모습이 8-1반 학생들에게 역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보다 나은 학생으로 성장한다면 그보다 좋은 행복은 나에게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나에게 감동과 재미, 일의 즐거움을 일깨워준 소주 한국학교 국제 교육실습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5-2. 재외한국학교 교육실습 경험 : 중국 소주한국학교(2019.11)

김도희(교육대학원 건설공학교육과)

[학창시절을 떠올리다 - 학생들과 친해지기]

소주한국학교는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학생들끼리 학년별로 구분 짓지 않고 다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8학년 2반(중2) 담임을 맡게 되었지만 고등학생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이들 모두 밝고 구김이 없어서 교생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걸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특히 12학년의 경우 입시가 끝난 상황이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었다. 몇몇 아이들은 친해졌다가 어색해지기도 했었고, 또 몇몇 아이들은 도무지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내 옆에 와서 본인의 일상 혹은 정말 사소하고도 쓸 데 없는 얘기를 하거나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질 때면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치 잠깐 동안 중2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의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꼭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를 다시 사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면서도 선생님 역할로 중심까지 잡아야하니 그 사이에서 조절이 힘들었다. 특히 청소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 지도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어느 선 이상으로 친근하거나 좋은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걸 느꼈다. 지금은 ‘교생’이라는 좀 더 친근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아이들이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었지만, 현직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거리를 좁힐 것인가는 교사를 하는 평생 동안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느껴졌다.

[교사라는 꿈에 첫 발을 내딛다 - 첫 수업 진행하기]

11월 14일, 교생실습 10일 만에 첫 수업을 하게 되었다. 교생실습을 오기 전까지 중등 과학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업 할 때 긴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자꾸 눈에 보이고 점점 늘어났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준비 설명이 추가되었던 것 같다. 45분의 수업이지만 수업은 준비할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얘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첫 수업이 하필(?) 1교시라 출근하자마자 말은 반 조례를 끝내고나니 시간이 다되어서 준비한 유인물을 들고 숨 가쁘게 반으로 이동했다. 첫 수업을 이렇게 숨 가쁘게 시작하다니 뭔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 했던 내용이지만 막상 25명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려니 내가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내용이라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따라와 주었고 수업 내용에 대한 몰입감도 있어서 놀라웠다. 수업 주제는

중3 ‘V.생식과 발생’과 관련하여 성윤리 함양을 위한 낙태 관련 법안 토론수업이었다. 교과서 외적인 내용이라 활동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는데, 낙태 관련 뉴스 기사는 많이 접했지만 나 또한 법안에 관해서는 아이들만큼 무지한 상태라 공부하면서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 토론 수업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막했지만 활동지를 만들면서 수업 계획도 생기고 수업 구상이 정리되는 것 같아 활동지 만들기가 너무 재밌었다. 내가 만든 활동지로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벅찬 마음이 들었다.

이전에 모의수업 할 때는 수업지도안을 만들면서 수업을 구상했는데, 이번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활동지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면서 수업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첫 수업진행이라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니 조금 더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수업 피드백으로는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대답을 유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아이들의 이름을 좀 더 외워서 호명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짧지만 알찼던 3주간의 수업 진행기]

실제 수업을 진행해보니 45분을 오롯이 혼자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교과수업이 아닌 담임 반 HR(Home Room) 시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니 생각이 많아졌다. 교과수업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면 되지만 HR시간에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준비 했는데 남녀공학이라 아이들끼리 손잡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몰라서 당황했다. 그리고 ‘나에 대해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지만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 아이들의 이목을 좀 더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 지어 흥미유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참여 수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 좀 더 확실한 방향 제시나 흥미유도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본인 생각을 정리하거나 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큰 목소리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톤으로 진행해도 수업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법을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골라 듣는 수업의 재미 - 다양한 참관 수업 참관의 기회]

함께 실습 온 9명의 모두 다른 수업 방식과 다른 교과목을 참관하는 경험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게다가 이번 교생실습기간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수업을 하는 기간이어서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참관을 할 수 있었고,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담임으로 맡은 반 아이들 수업을 참관하고 싶어서 해당 시간 선생님께 허락을 맡고 수업 참관이 가능했는데 이 곳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비교적 쉽게 허락해 주시는 편이었다. 본인 수업을 참관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감사했다.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서부터 내 전공 교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계기로 다른 과목 수업도 듣게 돼서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9명 모두 다른 스타일을 보면서 각기 다른 장점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존댓말 사

용에 있어서 가끔 어색하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다른 교생선생님 수업을 보며 말투나 자연스러운 어법 사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 교과 참관 수업을 할 때, 수행평가로 UCC만들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관람 했는데 주제가 ‘광고제작’이고 내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공익광고였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놀랐고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내가 맡은 교과에서도 UCC주제만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주제로 잡고 과제로 해도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다른 교과지만 수업 진행 면에서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선생님 바라보기 - 사회생활의 시작, 다양한 교사관, 교사라는 직업 이해하기]

나는 회사원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진로를 바꿔 교육대학원을 진학했다.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숙고하여 직업을 바꾼 거라 교사라는 직업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었다, 다만 일반 회사원과 교사는 분명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 교생실습을 통해 내가 겪어보지 못한 교사라는 직업군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과학 담당 선생님은 2분이셨는데, 과학 교생은 3명이어서 회식도 하게 되었다. 교사라는 직업군은 무엇보다 근무근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선생님들은 보통 하루에 5개의 수업을 매일 하고 계셨는데 수업은 아무래도 최소 15명과의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교사 본인의 건강 등의 자기 관리도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스킨십 등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아무래도 학생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회식을 통해 현직 선생님들과 친숙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티내지 않으려고 참느라 힘들었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대화할수록 각자 가지고 계신 교육적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과담당이 두 분이어서 각각 수업 참관도 여러 번 하고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도 보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다. 어떤 날은 A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B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옳다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다양한 학생이 있는 만큼 교사들 또한 가치관에 있어서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의 다양한 방식 모두 아이들에게 다른 측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간을 가진 덕분에 교생실습 기간 동안 나의 교육적 가치관과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회사 생활만 6-7년 했던 나는 교사라는 직업이 교사 개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커서 신기했다. 물론 실제 교사 생활을 하면 다르겠지만 그래도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나 선생님들끼리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 바라보기 - 자기표현이 뚜렷하다]

교생실습하기 전까지 중학생 대상으로 학원에서 과학강사를 했었기에 이 곳 소주학교에 왔을 때 한국 중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 궁금했었다. 소주가 외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인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곳은 학원이라는 면에서 이 곳 소주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분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주한국학교가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선생님들과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그런지 수업에서 질문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자기표현이 자유롭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일찍이 찾아서 하는 편이었다. 중2 여학생 중 유튜브도 있었는데 영상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는걸 보니 대단해보였다. 그리고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뮤직비디오를 관람했는데 노래를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표현이 자유롭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다.

이 곳 소주한국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보통 한 번 입학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도 교내 행사는 대부분 중고 같이 진행되었고 학생들끼리도 어울 없이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여행]

중국이라는 곳은 처음 가는 곳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외교생실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다.

한 달 동안 가장 큰 변화라면 소주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소주한국학교 선생님들은 소주 생활만 가지고 중국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중국이 왜 강대국인지 몸소 느꼈다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만족한다. 미디어나 사회교과를 통해 중국을 접했지만 정말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대만과 홍콩도 가보고 유럽도 가봤지만 상하이 난징동루역에서 와이탄까지 걸어가면서 봤던 수많은 인파와 동방명주를 포함한 거대한 빌딩이 만들어 낸 스카이라인과 숨막히는 야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왜 그동안 상하이는 여행 올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중국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정말 내가 무지했고 시야가 좁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다.

지금 교육대학원에 오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는 도전이라면 도전이다. '도전'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직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4학기에 접어들면서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처음 입학할 때 보다는 많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생실습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서는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삶의 여행 가이드’인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이라면 교육실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러한 관문을 지나가면서 대개 교직에 대해 자신의 꿈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다. 나 또한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를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교사에 대하여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해준 한 달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실습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첫 번째로 실습기간을 통해 꿈꿔왔던 교직생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계획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용해보고 직접 배워보라는 것이다.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나의 학급은 ‘꿈꾸는 아이들, 서로 아껴주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 실습학교에서 ‘친구사랑DAY’라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교문에서 학생부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wee-class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전 날에 만든 빵과 음료수를 나누며, 친구에게 하는 칭찬으로 전지를 채우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조금씩 표현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져 보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의 나의 제자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보았다.

첫째, 종례시간 인사로써 ‘친구들아 사랑해’라는 인사말을 넣어서 인사하는 것, 둘째, 교생인 나를 포함하여 매일 한 가지씩 친구들을 칭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종례시간에 사랑한다는 인사말과 한, 두 명의 학생을 칭찬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학급의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친구를 존중하며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학생이 생겨났다는 변화가 있었다. 나의 꿈과 비슷한 방향성을 갖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을 지켜보며 교직생활을 구체화해가고 교육실습기간동안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해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교사로서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아이들과 함께 적용해보며 원하는, 바라는 교직생활에 대해 한 발짝 나아가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 전공과 교육학에 대하여 충분한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 교육학, 다양한 교수이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에 대

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교육실습에서 수업을 계획할 때에 아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게 그 고민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전공지식과 교육학이었다.

대표 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찰나의 수학교육학에서 ‘문제 만들기’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 ‘문제 만들기’는 기존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요소를 일부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활동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면에서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창의성의 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수업에 다양한 계수를 갖는 일차부등식을 만들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표 수업 외에도 수업을 함에 있어 부등식의 도입에서 선생님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학생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수업을 진행했었다. 스토리가 있는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야기의 맺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전공지식의 문제해결, 스키마, 스토리텔링과 같은 다양한 수업의 방법을 배웠기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4년이 되는 시간 동안 대학교에서 쌓은 전공 지식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시연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진심을 담은 칭찬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라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칭찬은 아이들을 들쭉이게 한다. 교과수업 중 방정식과 부등식의 단원에서 일차부등식의 풀이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이때, 수업을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만들기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조별로 만든 문제를 칠판에 나와서 적어보니, 오늘 날짜를 해로 갖는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 부등식을 만드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단원에서 배운 순환소수를 계수로 갖는 일차부등식을 만드는 등 창의적인 답변들이 많았다. 문제를 만든 모든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면서 학급 전체에게 ‘너희들이 만든 문제를 보니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했구나. 너희들은 정말 창의적이구나.’라고 칭찬했을 때 아이들이 반응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 담임 선생님께, 다른 반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다음 교과수업에 반듯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칭찬의 영향력을 알게 해주었다. 후에 담당교사와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아이들을 칭찬할 때에는 한 명, 한 명,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실습을 가는 후배들에게 아이 한명에게 진심을 담아서 많은 칭찬을 해주고, 칭찬의 위력을 직접 느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과수업을 가르치는 반에서 미술적 감각능력이 뛰어나지만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상황을 모른 채 문제를 왜 풀고 있지 않느냐고 한번 도전하여 문제를 풀어보라고 권하니 자신은 수학을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풀기 이전에 포기해버린 상황이었다. ‘미술을 잘 한 것처럼 수학도 잘 할 수 있어.’ 라고 그 아이를 이야기 해주었지만 그 아이의 상황의 맞는 칭찬과 조언을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실습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되기를 조언하고 싶다.

교사는 학생들의 삶의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이다. 그리고 교육실습은 아이들의 삶의 여행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다. 나는 아이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교사에 대하여, 아이들에 대하여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느끼고 배운 것을 마음에 품어 ‘한 명 한명을 놓치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교생을 다녀온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실습에 대해 기대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교육실습은 가는 학교의 특색에 따라, 심지어 가르치는 학급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실습을 간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쁘고 따뜻하다는 것이었다. 교육실습을 가기 전 떨리고도 긴장된 마음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교육실습에 임하기를 바란다.

약 110시간 동안 교육봉사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교직 이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교육봉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봉사는 꼭 교직 이수를 하거나 선생님이 될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또는 능력을 남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다.

나는 처음에 학점을 채우기 위해 교육봉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고 시간 때울 수 있는 교육봉사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1365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생 2명을 가르치게 되었다. 처음 누군가를 가르쳐 보는 것이었기에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선생님이라고 따라주며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을 보며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겨울방학 기간에 방과 후 수업으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는 곳을 찾게 되었다. 학교를 그다지 멀지 않은 유성생명과학고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10일 동안 4시간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1학년과 2학년을 2시간씩 포개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단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연 어떤 수업을 만들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즐겁고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을 했다. 내가 학창시절에 '이런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업을 직접 실현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대부분 학생에게 거부감을 주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않은 않아서 수업 할수록 위축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수학 관련 게임을 하였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친해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란 어떤 것인지 듣게 되었다. 학생들은 나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방학 동안 어쩔 수 없이 듣는 수업 일뿐더러 교사도 아닌 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그리고 하나 깨달았다. 나는 아직 교사가 아니고 학생들보다 나이 많은 선배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니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학생들이 진정 원하고 재밌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진도와 수업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수업을 진행했다. 목소리에는 활력이 생겼고 수업시간 동안 즐거움이 가득했다. 학생들도 어느새 집중하고 잘 따라 주어 10일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미 교육봉사 학점은 다 채웠지만, 더 봉사하고 싶었다. 이제는 다른 과목이 아닌 내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싶어 찾아보니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중학생과 1대 1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다. 총 3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에게 과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학생 스스로가 과학이라는 분야를 재밌어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복습하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첫날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1시간은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듣던 학생이 남은 1시간은 힘들어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교직 시간에 배운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visual thinking 등을 본 수업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수업 등에 활용했다. 결과는 남달랐다. 학생이 수업을 기다리면서 빨리 수업하기를 원했다. 간단한 안부 등을 물은 뒤에는 2시간 내내 수업에 몰입할 수가 있었다. 확실히 내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을뿐더러 나 자신도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다. 내일은 어떤 수업방법으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쉽게 알려 줄 수 있을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등 즐겁고 재밌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내가 학생일 때 느끼지 못했던 교사의 어려움과 책임감 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일이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하며 매우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미리 교사가 된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교육봉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되기 전에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만약 교육봉사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적은 수의 학생과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훨씬 수업에 부담도 적어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틀이 잡혀 나가게 된다. 이러한 교육봉사는 주로 자원봉사 포털 등을 활용해서 직접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혹은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하는 수업도 있으므로 다양하게 찾되 자신과 맞는 수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본인과 학생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적은 수의 학생과의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뒤에는 꼭 많은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해보길 추천한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고 떨리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에는 의무적으로 매년 60시간씩 봉사시간을 채워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던 나는 교육봉사가 하고 싶었지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학생으로서 아직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도와주고 배움을 주기에 어리다는 어른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진학 시 여러종류의 교육봉사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바쁜 대학생활로 인해 작년에 교육봉사를 처음 해보았다. 사범대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했던 무주 구천초등학교에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 봉사를 다녀왔다. 먼저, 조원들과 어떤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며 배울점을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토의했다. 각자의 경험과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가치관 경매 게임’을 수업 주제로 잡게 되었다. 가치관 경매 게임이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경매하는 심성놀이이다. 아이들은 제시된 여러 가지 가치 중 개인별로 가치 피라미드를 위쪽부터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가치를 정해놓는다. 모둠별로 모여 자신이 적은 가치를 돌아가며 이야기 나눈 후에 모듬이 구매하고 싶은 가치의 가격을 정해놓으면 경매가 시작된다. 이 게임은 진열된 가치 품목이 모두 팔리면 종료되는 것이고, 주어진 돈 안에서 더 많은 가치를 산 모듬이 이기게 된다. 이 게임을 할 때 교사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경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솔해야하고,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각각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가치를 살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이야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슬라임 만들기나 화산 폭발하기 등 과학적인 간단한 실험을 하며 이론적인 지식이나 만들기 할 때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에 대해 조금 더 파악하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 게임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삶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평소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졌다.

수업은 하루에 4개 정도 진행하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을 맡았다. 처음에 우리 반으로 온 아이들은 4학년이었다. 확실히 고학년이 되다보니 수업을 나름 잘 집중해 주었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경매게임에도 금세 적응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조금은 어려워하는 4학년의 모습에 다음 수업인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걱정이 되었다. 1학년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난이도라고 생각해 급하게 저학년 수업은 주제를 변경하였다. 준비해온 수업자료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놀이를 진행하였다. 평소에 아르바이트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아이들 앞에서 칠판을 활용해 수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었고, 아이들과 친해지느라 바쁜 하루였던 것 같다. 몇 번 수업을 하면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가치관 경매게임을 학년에 맞게 미리 조정해왔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도 어렵고, 경매도 어렵기 때문에 가치관만 활용해서 할 수 있

는 게임을 진행하도록 했어야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수업의지를 돋우기 위한 칭찬이나 상이 부족했던 점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말을 듣고 칭찬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동기를 자극해준다. 실제로, 칭찬을 들으면 전두엽이 발달되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많이 알려져 있는 전문적인 내용도 있다. 나도 칭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칭찬하는 나의 모습이 어색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에 반성하며, 앞으로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 이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과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조원들과 상의해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간식을 구입하였다.

첫 날 수업을 통해 조원들과 많은 토의를 거치고 보완해야할 점들을 생각하며 수업을 하니 훨씬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부딪쳤다. 2학년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아이가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고 수업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달랬지만 그 아이를 이끌어가기엔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수업시간에서 배제되게 되었고, 혼자 가만히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 교사를 꿈꾸는 나는 이 아이를 보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수록 이끌 수 있는지,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어 수업에 참여하기 싫은지 파악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조원이 수업을 하는 동안 그 학생과 조용히 대화를 시도해 본 결과, 만들기를 좋아해 만들기 수업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있고, 그 수업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며 1대1로 가르쳐주며 수업에 따라갈 수 있게 지도하였다. 점점 수업에 빠져들고, 다른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며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봉사를 하는 동안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는 나를 보며 내가 교사가 되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아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매끄럽게 수업을 이끌어어나가는 내 모습에 조금의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교사가 되면 칠판에 판서하는 것이나 수업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 아이들을 칭찬해주는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가치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친구관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는 것 등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뽑았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 있냐고 물었을 때 돈, 경제적 안정 이런 키워드가 떠올랐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뀌었을 정도로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찾아 떠났던 옛날과는 달리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라는 꿈을 그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갖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정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는 아이들이 부러우면서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돈을 쫓고 더 많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동안 교육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도 많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함을 느꼈던 나는 이번 계기로 교육봉사를 자주 다녀오자고 마음을 먹었다. 몇 주 뒤에 바로 또 다른 교육봉사를 신청하여 장애학교를 다녀왔다. 봉사자 한 사람씩 한 아이를 맡아 돌보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공부를 배우기보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봉사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배운 것은,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한다고 하셨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뿐이지 우리가 동정해야 할 대상들이 절대 아니다. 조금 다르게 태어나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랄 뿐인데, 우리가 일반 학생들과 차별하게 되면 장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일반 학생들과 다르다고 깨닫게 된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돌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일반 학생처럼 혼내되, 어떠한 적절한 방식으로 말해주고 고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지가 많은 고민이 되었다. 교육봉사가 끝날 때까지 끝내 올바른 방식은 찾지 못하고 그저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설명해주는 방법이 나의 최선책이었다.

교육봉사를 할 때마다 배워가는 것들이 많고, 선생님이란 어떤 직업인지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 먼저, 교육봉사를 하면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고 느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진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성격이나 성향이 다 다른 아이들을 한 반으로 만들어 통제하며 교육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모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며 다름을 존중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사가 될 것이다. 학생들을 혼내기 전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무조건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인 내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교육봉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떤 교사상을 꿈꾸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교육봉사를 하면서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며칠 동안만 돌봐주는 도우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또 다른 선생님의 자격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학교 교육봉사를 꺼리지 않으면 좋겠다. 장애학교 봉사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조건을 가졌을 뿐, 똑같은 학생이고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 나는 교육봉사들을 쉽게 접하기 위해 교내에 있는 ‘그루터기’ 교육봉사 동아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른 학우들도 봉사 동아리를 통해 미래의 선생님이로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들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제가 대학생이 된 후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곳은 '000'이라는 복지시설이었습니다. 000은 0세~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 또는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황 등에서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000 건물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건물과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건물로 나뉘는데, 제가 가게 된 곳은 후자였습니다. 함께 교육봉사를 하는 친구들 2명과 함께 방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신 뒤 학생 3명을 들여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각자 한 명씩 맡아 한 방에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교육봉사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몇 년 동안 같은 선생님과 함께하다가 그 분들이 졸업을 하시게 되면서 올해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우리를 많이 낯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첫날에는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조금은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000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한 방에서 3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 형식 특성상 서로의 멘토·멘티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맡은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였지만 대화를 많이 나눈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좋아하는 취미가 같아 그것을 중심으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저도 한때 미술을 희망했던 학생으로서 아이의 행동에 공감을 많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기점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젠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언니가 한 명 있다며 언니를 한참이나 칭찬하고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자매가 사이가 좋아 보며 무심코 “언니는 지금 뭐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물음에 학생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차 싶어 화제를 돌리고자 했지만 학생은 이미 “몰라요. 지금은 같이 안 살아요.”라는 대답을 한 뒤였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교육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 시설이었습니다. 저의 말 한 마디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 아이가 그 말에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을지 저는 수십 번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부주의한 질문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 전 ‘내가 하려는 말이 아이가 들었을 때 괜찮은 말인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라고 아이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라면 가차 없이 버렸습니다.

제가 교육봉사가 참여하게 될 후배들에게 꼭 해 드리고 싶은 조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중하게 말을 골라 대화할 것’. 사범대학 재학생으로서 교육봉사를 하는 기관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봉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아동, 보호자와 함께 있지 못하는 아동이 도움을 받기 위해 머무는 장소이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다양한 사정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옵니다. 보호자의 이혼일 수도 있고 가정 폭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와 같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아이들의 사정을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함부로 알아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보호 받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온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람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을 열기 전 내가 하려는 말이 앞에 있는 아이에게 적절한 말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한 번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뒤 나오는 문장은 이전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배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교육봉사 대상 아동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 활동을 하며 저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배우고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학생에게 생각이 부족한 질문을 꺼내 반성했던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000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겨울 방학 동안 저는 다시 교육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00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봉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동시에 들곤 합니다. 000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양분 삼아 이번에 제가 만나게 될 멘티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봉사를 하게 될 후배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생을 만나고, 그 학생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후배 분들이 교육봉사의 참된 뜻을 알고 시간 채우기의 수단이 아닌 학생들의 바른 길을 위한 목적으로써 교육봉사 활동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교육봉사활동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교육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여야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머릿속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막상 이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글이 아마 당신의 고민 중 한 벽을 열어줄 열쇠역할을 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교육봉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과정들이 존재할까?

우선 처음에 해야 할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 봉사기관을 선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가장 편한 방법은 학과에서 공지해주는 교육봉사를 신청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봉사를 구할 때에는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1365 등의 자원봉사포털에 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 구할 때는 반드시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로 ‘교육봉사’로 봉사확인서가 발급되는지와 그 기관이 교직 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1365에서 교육 카테고리 에 있는 봉사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보니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교육봉사로 발급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교육관련 활동이 아니면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도록 주의하자.

봉사활동을 할 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을 성공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 중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해보도록 하자. 봉사활동을 할 때에 필자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바로 학생들을 대할 때였다.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하는 예비 선생님에 비해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히 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예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예비 선생님이 가장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것이다. 예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절대로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사실 예비 선생님들도 비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과 있을 때, 특히 학습을 진행할 때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을 비교하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진도가 느릴 때에 “OO이는 벌써 다 끝냈는데 너는 왜 못 끝냈어?”나 “XX이는 독서록을 10줄이나 썼는데 너는 왜 3줄이야?” 등의 비교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매우 불쾌해하고 상처받는다. 필자도 봉사활동 중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여 한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해 곧바로 사과를 하였던 기억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은 질투도 많고 마음도 여리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한 가지 팁으로, 만일 위와 같은 실수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학생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은 쉽게 상처 받기도 하지만, 사과를 하면 비교적 쉽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만일 사과를 하는 것을 미룬다면, 그때는 이미 그 학생의 마음이 굳게 닫

혀있을 수 있느니 주의하도록 하자.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거친 말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위 문단과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들은 예비 선생님인 당신의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예로, 필자가 봉사활동을 할 때 다른 예비 선생님이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조금 거친 말투를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그 직후 그 학생은 매우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울음을 터트린 상황이 발생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학생들은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자신의 타임을 느꼈을 때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혹여나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거친 말투를 절대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계속 언급하지만 학생들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선생님은 이런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에 맞춰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만일 학생들이 심각하게 싸우는 현장을 경험할 시 중재를 잘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봉사활동을 짧은 기간에 진행하였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학생들의 싸움을 중재한 경우가 3번이 넘는다. 특히나 불과 몇 분 전까지 잘 놀던 학생들이 짧은 사이에 싸우는 장면을 보며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막막했던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예비 선생님들 역시 높은 확률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필자는 짐작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중재하는 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 중요한 것은 싸운 학생들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상황에 최대한 공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싸운 학생들을 격려시켜놓고(싸운 학생들을 붙여놓으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음), 각 학생들에게 왜 싸움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공감을 해준다. 그 뒤 평소에 상대방에게 쌓인 부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여 서로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오해를 풀어 화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재를 하는 도중에 누구의 편에 서서 다른 학생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하며, 학생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가 어떻게 중재를 해주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도,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비 선생님들이 교육봉사활동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을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쯤에서 예비 선생님들은 이런 궁금점이 생길 것이다. ‘그럼 주의할 점만 지키면 끝나는 것인가?’답은 NO이다. 주의할 점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해당한다. 예비 선생님이 교육봉사를 훌륭히 마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의할 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하면 더욱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활동하는 동안 만나는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기해하였던 것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선생님이 기억하면 자신이 선생님의 관심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매우 기뻐하는 장면을 생각보다 많이 보았다. 생각해보면 필자 역

시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할 때면 괜스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새록한 것을 보니 학생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었다. 그래서 필자 역시 만나는 학생들의 이름과 간단한 특징 등을 기억하였더니 학생들이 매우 기뻐하였고 필자의 말을 더욱 잘 따라주는 행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예비 선생님들이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단지 이름 세 글자를 외우는 것으로 학생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할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생각보다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예비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 그 학생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관심을 표현하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예비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지며 다가오게 되고, 예비 선생님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예시를 들어 만일 한 학생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학생 옆으로 간 뒤 어떤 게임을 하나고 물어보며 점차 대화의 주제를 넓혀나가는 것이 있다. 대화의 주제를 넓혀가면서 쉽게 그 학생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중요히 생각하며 점차 그 학생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한다면 성공적인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예비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봉사를 하는 것을 추천, 아니 부디 진심인 봉사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심이 아닌 상태로 봉사를 하는 것은 의외로 학생들에게 금세 발각된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봉사하는 예비 선생님과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동과 표정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를 학생들이 가장 잘 느끼기 때문에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학생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 선생님은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마음가짐을 지니기를 바란다.

위에서부터 작성한 것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예비 선생님에게는 위의 내용이 아마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처음에 필자가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봉사를 가기 전날까지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활동을 한 즉시마다 후회하고 고치며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이 뼈저리게 기억난다. 결국 필자도 완벽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심이었던 점과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며 학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에게 작은 KEY를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부디 선생님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필자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교육봉사활동을 할 것을 응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최선을 펴보자. 선생님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